

**【글로벌, 슬로바키아 물류법인 설립】**

현대·기아자동차를 종합물류기업 글로벌(대표이사 이주은 사장)는 3월 11일 슬로바키아 물류법인(GLOVIS SLOVAKIA, s.r.o.)을 설립하고 유럽 현지 물류사업에 진출하였다.

최근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과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의 동유럽 이전에 따라 유럽 물류 시장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DHL, TNT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동유럽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동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슬로바키아는 도로와 철도 등 물류 인프라는 발달해있으나 전문 물류산업은 유치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3자물류시장도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물류기업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은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 및 동반진출사, 협력사 등에 현지 여건에 최적화된 고품질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해 현대·기아자동차의 품질 경영이 유럽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에 물류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슬로바키아 물류법인을 전초기지로 삼아 유럽지역 3자물류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계획이다.

슬로바키아 물류법인 설립으로 글로벌은 3개의 해외물류법인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현재 설립 추진중인 중국 물류법인과 연계하여 한국, 중국, 미주,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Supply Chain 관리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글로벌은 고객사를 위한 지속적인 물류 혁신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한익스프레스, 사명변경 착수】**

최근 종합물류기업으로의 사업 비전을 설정한 한익스프레스(대표 이상욱)가 회사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명 변경 작업에 들어갔다.

중물업 인증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물류업계의 전반적인 동향으로 볼 때 충분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 회사는 사명변경을 기회로 종합물류업의 큰 방향인 전략적 제휴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새로운 사명은 사내직원 및 사외공모를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 받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사외용모는 회사 홈페이지(www.hanex.co.kr)에서 접수받고 있다.

한편 한익스프레스는 중물업 인증과 관련 자산 늘리기에도 한창이다. 지난 1월 4천평 규모의 부산 영도창고를 매입한 바 있으며 이달 1일 착공한 인천공항내 '인천국제물류센터'에도 투자사로 참여했다. 인천국제물류센터 참여를 통해 최대물류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국시장으로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는 "물류 브랜드 변경은 기존 이사회물업체의 기업 이미지에서 탈피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물류 서비스 품격 강화와 함께 협력업체와의 공조체제를 한층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권·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본격 추진】**

건설교통부는 중부권과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 건설을 위해 '중부 복합물류 주식회사 (가칭)와 '칠곡 내륙화물기지 주식회사 (가칭)를 각각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일원(복합화물터미널 6만2천평)과 충남 연기군 동면 용암리 일원(CD 8만4천평)에 약 14만5천평규모로 2008년까지 건설해 2009년 1월부터 운영된다.

중부권 내륙기지를 건설·운영할 '중부복합물류(주)'는 작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으며 12월 정부측과 협상을 완료해 지난달 14일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다.

중부복합물류(주)는 총 민간사업비 1105억원을 투자해 ▲화물취급장 4동 ▲배송센터 4동(복층 2, 단층 2) ▲컨테이너 장치장(CY) 2만평 등 주요시설과 운영건물, 차량정비소 등의 지원시설을 건설, 일반화물 210만, 컨테이너화물 35만TEU를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영남권 내륙기차건설에 9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입철도 3.6km, 진입도로 500m, 인입상수도 19km 등 기간시설을 2008년까지 건설해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도 중부권 내륙화물기지와 같은 일정으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일원에 복합화물터미널 7만2천평, ICD 6만6천평 등 약 13.8만평규모로 지어진다.

영남 내륙기지 시행사인 '칠곡내륙화물기지(주)'도 작년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 중부복합물류(주)와 같은 일정으로 협상 완료와 민자사업심의등을 거쳤다.

칠곡내륙화물기지(주)는 총 민간사업비 1360억원을 투자해 ▲화물취급장 7동 ▲배송센터 3동(복식) ▲컨테이너 장치장 2만7천평 등 주요시설과 운영건물, 차량정비소 등의 지원시설을 건설, 일반화물 357만, 컨테이너화물 36만TEU를 연간 처리하게 된다.

정부는 영남권 내륙기차건설에 1068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 진입도로 3km, 입체화시설 2개소, 인입철도 5.6km 등 기간시설을 2008년까지 건설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그간 중부권 3회, 영남권 1회 등 민간사업자 모집에 몇 번 실패한 점을 감안해 취득·등록세 전액감면, 재산·종합토지세 5년간 50%감면, 재정용자 30%→40% 확대 등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유인책을 대거 내놴다.

중부·영남권 내륙화물기지는 소량·다빈도 화물들을 집하·보관·포장해 대량 수송함으로써 전국 물류거점 화물기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중부·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로 중부권 959억원/년, 영남권 981억원/년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화물의 대량수송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이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로 영남권은 4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970억원의 소득유발효과, 3600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발생하며 중부권도 4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877억원의 소득유발효과, 3244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운영중인 수도·부산권 내륙화물기지와 올 상반기부터 일부 운영될 호남권 내륙화물기지에 이어 중부·영남권 내륙화물기지가 2009년 1월부터 운영되면 전국 5대권역에 내륙화물기지가 모두 들어서게 된다.

**【건교부, 유통·물류 기반시설 등에 대한 토지구제 완화】**

건설교통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자연녹지 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5. 4.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중에서 유통·물류기반시설의 규제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형할인점, 화물터미널 등 물류·유통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목적용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한다는 내용인데,

첫째,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현행 부지면적 1만㎡에서 3만㎡ 이하로 완화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의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내대지등 개발적성을 갖는 토지에만 확대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확대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의 부지면적 1만㎡로는 저층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필요한 건물면적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둘째, 관리지역(중전의 준농림·준도시지역)이 세분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형할인점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도시내에 적절한 입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고 도시외곽에 입지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물류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화물터미널 및 유통업무설비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적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였다.

현재 이들 시설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되고 있어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로 할 필요성도 줄어들어 임의시설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日 소니, 한국내 자회사물류법인 설립]**

일본 소니 그룹이 한국내 소니 관계사들의 물류업무를 통합수행하는 자회사물류법인을 설립한다.

소니 그룹은 한국내 100% 투자법인인 소니서플라이체인솔루션즈 코리아(주)(대표이사 시오세 마사야키)를 설립하고, 지난 4월1일부터 종합 물류 서비스 업무를 시작했다.

소니측은 이와 관련 "한국내 소니 관계사들의 물류 및 구매·수출입 업무를 통합해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 소니 관계사간 물류업무를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 제고에 그 설립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소니서플라이체인솔루션즈 코리아는 소니와 삼성전자의 합작법인인 'S-LCD'의 7세대 LCD 소니 생산 물량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하게 되며, 기존 소니코리아의 물류 및 구매·수출입 업무도 맡게 된다.

현재 충남 당진과 경기도 군포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부산, 인천 등지에도 물류시설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삼영물류, 물류표준설비 인증 획득]**



3자물류(3PL) 전문업체인 삼영물류(대표 이상근)가 공동물류사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물류표준 설비인증은 국가가 정한 표준파렛트(1100×1100mm·T11형) 규격에 맞는 포장상자, 컨베이어벨트, 지게차 등에 대해 표준인증을 제정, 물류설비 생산자와 사용자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업체에 대해 자금과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삼영물류는 표준규격이 제정·고시된 품목 중 플라스틱제 평파렛트, 포크 리프트 트럭, 파렛트 랙, 골판지 상자에 대해 물류설비 표준 규격과 인증 기준과의 적합성을 인증받았다.

삼영물류는 이번 인증을 통해 "일관수송체계의 물류표준화를 정착시켜 물류시설 및 설비의 호환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사의 모든 물류시설 및 설비를 표준화 및 규격화하여 공동물류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삼영물류는 ISO 9001:2000의 표준화된 물류시스템 아래 물류 컨설팅부터 입고, 보관·재고관리, 물류가공, 출고, 배송, 물류정보의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사업인 공동물류사업 성공전략으로 ▲SLA(서비스품질보장) ▲CSI(소비자충만지수) ▲KPI(주요성과지표) 등 지표관리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 첨단물류시스템 도입]**

인천국제공항의 각종 화물 종류와 생산자, 배송지역 등을 알 수 있는 첨단물류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市)가 신청한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항공화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범사업'이 최근 정보통신부에 의해 '정통부 2005 RFID적용 선도사업'에 선정됐다.

RFID는 제품 종류와 생산자, 가격, 유효기간, 배송지역 등이 담긴 손톱 크기의 전자칩이 부착된 제품에 고주파를 발사, 제품의 각종 정보를 파악하는 첨단 IT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작은 슈퍼마켓에서 거대한 항공화물 창고에 이르기까지 보관된 각종 물품의 양과 가격, 배송지역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차세대 첨단 물류시스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의 화물에 우선 시범 적용한 뒤, 공항 내 외국공항 화물, 수하물 및 영종도 배후 자유무역지역 항공, 고부가가치 항공화물 제조 기업과 공항, 인천공항과 국내 공항 간 화물, 공항과 인천항 화물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자체 예산 10억원과 정통부 예산 12억원으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운영 구축, 장비 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에 현대모비스 물류센터 건립]**

경북 안동에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현대모비스의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지난 4일 안동시에 따르면 다음 달 말 중앙고속도로 남안동 나들목 인근인 일직면 승리 일대 7천여평 부지에 현대모비스 안동 물류센터가 건립된다.

총 5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본관과 유류저장소 등의 건물로 꾸며지는 이 센터는 경북 북부지역민들에게 각종 자동차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이 센터가 세수확대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펼칠 방침이다.(안동=연합뉴스)

## 【우리홈쇼핑·택배사 “안쓰는 물건 기증받아요”】

우리홈쇼핑과 택배사가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똘똘했다.

4월 업계에 따르면 우리홈쇼핑과 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 HTH택배 등 4개 택배사는 아름다운 가게와 손잡고 일반 시민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기증할 수 있도록 5일부터 기증품 무료 수거 서비스를 전개하기로 했다.

우리홈쇼핑은 이를 위해 4월말까지 일반기업체로는 유일하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우리홈쇼핑은 홍보 전단지 50만장을 제작해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을 우리닷컴에서 상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상품 배송시 포장 박스에 넣어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택배사들은 기증품 무료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료 수거 서비스는 기증품 박스 포장 후 아름다운 가게의 대표 전화 02-3676-1004나 ARS전화 1688-5004로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우리홈쇼핑의 정대중 사장은 “최근 봄철을 맞아 집안 대청소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기증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라며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을 이용 고객이 전국에 퍼져 있는 만큼 이번 대국민 캠페인이 기증 문화 활성화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름다운 가게의 남재석 기증 개발팀장은 “전국에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홈쇼핑이 이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최근까지 월 평균 약 3만여건(기증품 약 10만 점) 정도 접수되고 있는 기증 건수가 4월 이후에는 월 평균 약 30만여건(기증품 약 100만 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홈쇼핑은 지난해 7월 아름다운 가게 온라인 매장 ‘생생물’ 재구축 후원금을 기부한 데 이어 12월에는 전 임직원이 모은 재활용품과 방수 전시장품 등 총 2천여점의 기증품을 판매한 ‘우리홈쇼핑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전개했으며,

올 2월에는 아름다운 가게 수거 배송 차량 4대를 기증한 바 있다.

## 【TPG, TNT로 브랜드 통합완료】

세계적인 네덜란드계 종합물류사인 TPG는 2005년 4월부터 모든 대외 활동을 TNT브랜드로 수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TPG N.V.라는 사명은 TNT N.V.로 바뀐다.

TPG라는 브랜드는 2001년 네덜란드 로얄 PTT Post가 세계적인 물류특송사 TNT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도입한 TNT Post Group의 약자였으나 이번 브랜드 통합을 계기로 TNT로 바뀌게 됐다.

TNT는 TNT 설립자의 머리글자에서 비롯된 Thomas Neilson Nationwide Transportation의 약자다. TNT는 우편, 특송, 물류의 세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16만 임직원들이 전세계 200개국에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브랜드 통합은 TNT가 앞으로 단일 브랜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통합 작업은 4월부터 시작되며, 우편 사업 부문의 통합만 2006년부터 시작된다.

## 【TNT로지스틱스, 佛 국영철도회사와 물류계약 체결】

TNT 로지스틱스가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인 SNCF의 물류파트너로 선정됐다.

TNT로지스틱스는 2006년부터 향후 6년간 프랑스의 대표적 고속전철인 TGV를 포함한 SNCF의 모든 기관차와 화물 열차스페어파트의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또한 파리 근교에 위치하게 될 45,000평방 미터 규모의 SNCF 중앙 물류 센터의 관리와 프랑스 내 총 55개 보수 센터의 상황을 통합해 유지 보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프랑스 전역의 열차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사업을 맡게 되었다.

이를 위해 TNT로지스틱스 프랑스는 최첨단 솔루션으로 SNCF ERP 시스템의 처리 속도를 개선해 각종 장비에 필요한 기자재와 부품 흐름의 속도를 개선시킬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업무 달성을 위해 프랑스의 대표적 택배회사인 세르남(SERNAM)과 전략팀을 구성했다. **특보**